

공무원 보수 2.5% 인상

인사위원회, 성과급 비중도 확대

올해 공무원 보수는 2007년에 비해 총액 대비 2.5%가 인상되고, 공무원 개인의 실적과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 비중도 확대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급 1.8% 인상을 포함해 모두 2.5%가 늘어난다.

이는 2007년과 같은 수준이다. 앞서 2004년에는 3.9%, 2005년 1.3%, 2006년 2.0%씩 올랐다.

성과급 비중은 지난해 3%에서 올해는 4%로 확대돼 같은 직급이라도 개인별 실적·성과에 따라 보수 차이가 커진다. 이에 따라 같은 5급 공무원이라도 등급간 최대 차액이 2007년 449만원에서 올해에는 583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연합뉴스

“신용회복 지원

원리금 탕감 아니다”

인수위 강만수 간사

강만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는 4일 “신용회복 지원에 대해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은 생각할 바 없다”고 밝혔다.

강만수 간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자 과다한 경우 신용회복기금에서 인수해서 적정금리로 전환하는 ‘환승론’의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지만 이자나 원금까지 탕감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용회복 지원에 재정투입이 10조원 정도 투입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재정투입은 최소한으로 할 것으로 이미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다시 배드뱅크 만들어 상환 조치하고 이익이 남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국제유가 연이틀 100달러 돌파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면서 ‘유가 100달러 시대’ 진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2월 인도본 서부텍사스 중질유(WTI)는 장중 배럴당 100.09달러까지 상승한 뒤 99.18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석유시장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 100달러를 재돌파했지만, 이후 연료유 재고 증가소식에 비중이 실리면서 전날 수준을 유지했다.

국내에서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도 급등했다. 지난 3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은 전남에 비해 배럴당 2.74달러 오른 92.03달러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26일 배럴당 90.10달러를 넘어서는 사상 최고치다.

두바이유 가격 급등은 전남의 수급 불안감과 지정학적 불안요소 확산에 따른 뉴욕과 런던의 유가 급등이 뒤늦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전남 폭설피해 ‘눈덩이’

37억 6,000만원 잠정 집계...서울시 공무원 등 피해복구 봉사 ‘구슬땀’

사상 최대의 폭설이 내린 광주·전남 지역의 피해 규모가 점차 늘어 37억 6천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같은 피해 상황을 접한 서울시 자원봉사단이 전남을 방문, 나주 등지에서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하는 등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인삼 재배시설 91.8ha, 비닐하우스 190동, 축사 31개 동, 공장 4개 동이 폭설에 무너져 내린 것으로 조사돼 전체 피해 금액은 전남 집계된 23억원에서 크게 늘어 37억 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관측 이래 최대 적설량(41.9cm)을 보인 광주는 비닐하우스 59개동(5.2ha)과 오리·닭을 키우는 축사 3개동 등의 농가 시설물이 파손돼 총 7억 3천만원의 피해를 입었

다.

자치구 별 피해 금액은 비닐하우스 등 농가 시설물이 많은 남구가 2억 8천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 2억 3천700만원, 동구 9천900만원, 북구 8천400만원, 서구 2천300만원 등이다.

일부 지역에 20cm 안팎의 눈이 내린 전남도의 경우 인삼 재배시설이 많은 나주시와 영암군에 피해가 집중됐으며 피해 금액은 30억 3천만원으로 늘어났다.

피해 시설물은 비닐하우스 131개 동(7.4ha), 인삼 재배시설 91.8ha, 버섯 재배시설 0.1ha, 축사 28개 동(1.4ha)이다.

시·군 별로는 나주시가 14억 1천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영암군 8억 5천800만원, 장성군 4억 1천800만원, 화순군 1억 6천600만원, 담양군 1억 4천900만원, 광양시 1천700

만원, 무안군 800만원 등이다.

시·도는 무허가 시설물들은 아직까지 피해 신고 접수가 되지 않은 데다 시설물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의 경우 정확한 피해 금액이 산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앞으로 피해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농가 시설물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도는 경찰력, 공무원, 군부대, 자원봉사자 등 인력 700여명과 장비 80여대를 투입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4일 폭설 피해를 당한 나주시에 97명의 자원봉사단을 파견해 봉사활동에 들어갔다. 서울시 자원봉사단은 4일부터 이날 동안 나주시 공산면 인삼피해 농가에서 피해복구 활동을 벌인다.

최정호기자 chae@kwangju.co.kr

美 대선 오바마·허커비 돌풍

경선 레이스 시작...아이오와 코커스서 민주·공화 각각 1위

2008년 미국 대선 레이스의 개막을 알리는 3일(현지시간) 민주·공화당의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거센 돌풍이 일어났다.

민주당에선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꿈꾸는 초선 연방상원의원인 버락 오바마가 큰 차이로 승리하고, 공화당에서는 몇달 전까지만 해도 한 자릿수 지지도에 그쳐 무명이나 다름없었던 마이클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가 1위를 차지하는 대변이 발생했다.

오바마는 이날 밤 11시30분께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37.6%의 득표를 얻어 각각 29.

7%와 29.5%의 득표를 얻는 데 그친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과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물리치고 1위를 차지, 승리를 확정지었다.

당초 초박빙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던 이번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오바마가 압승한 것은 변화나 경륜이나의 대결로 요약됐던 이번 경선에서 젊은 유권자들이 상당수 투표에 참가하는 등 민주당 당원들의 ‘바뀌 열풍’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적인 지지도는 물론 최근 아이오와주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고수해왔던 힐러리는 2위 자리마저 간발의 차로 지난 2004년

민주당 부통령후보였던 에드워즈 전 의원에 게 내줌으로써 대세론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공화당의 허커비도 34%의 지지를 얻어 26% 득표에 그친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누르고 승리했다.

또 프레드 롬스 전 상원의원과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각각 13%를 얻어 그 뒤를 이었다.

침례교 목사로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허커비가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돌풍의 주역이 된 배경에는 공화당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독교 복음주의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경총 신년인사회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회장 염홍섭)는 4일 오후 6시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광명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등 각급 기관장과 경제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기업경영 최대 걸림돌 ‘원가부담’

광주·전남경총 설문조사

광주전남 경영인들은 새해 기업경영의 최대 걸림돌로 ‘원가부담’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최근 지역 72개 기업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2008년 경제전망 설문 조사를 한 결과 43.3%가 새해 기업경영 최대 애로사항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을 들어 가장 많았다.

경영인들은 유류, 철강재, 곡물 등 원자재의 가격 상승세가 새해에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원가부담 요인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중국 등 경쟁국 기업의 공세(19.

2%)’, ‘환율 불안(14.2%)’, ‘노사관계 불안정(13.3%)’, ‘정권초기 신정부 정책 불투명성(4.2%)’, ‘정부의 과도한 규제(3.3%)’, ‘대북관계 악화 가능성(1.7%)’, ‘지나친 반기업 정서(0.8%)’ 등이 경영 애로 요인으로 지적됐다.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과 관련,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업투자 활성화(49.4%)’, ‘물가 안정화 정책을 통한 생활 안정(17.7%)’, ‘세금감면을 통한 국민 부담 경감(10.1%)’, ‘고용안정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강화(7.6%)’, ‘부동산 가격안정(6.3%)’, ‘사교육비 절감(5.1%)’ 등의 순이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시 국·과장급 승진 인사

광주시는 4일 정재현 감사관(4급)을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 등 국·과장급 승진자 1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시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옥봉 예산담당관과 서동진 문화예술과장을 준국장급으로 직위 승진시켰다.

준국장급은 공보관을 비롯해 감사관, 투자유치담당, 문화정책관, 의회 총무, 의사담당관 등 6개 자리다.

4급 서기관 승진은 행정직에서 기원건 예산총괄담당을 비롯, 최연주 관광기획담당 등 7명이며 기술직은 장구식 문화기반

시설담당과 김흥기 도로계획담당 등 5명이 한 직급씩 올랐다.

승진자에 대한 보직 인사는 오는 10일 있을 예정이다.

다음은 승진자 명단. ◇3급(부이사관) ◇정재현 ◇준국장급 ▲김옥봉 ▲서동진 ◇4급(서기관) ▲기원건 ▲박홍표 ▲최연주 ▲한재만 ▲박해규 ▲임채관 ▲김승호(이상 행정직) ▲장구식 ▲류용민 ▲성원진 ▲김흥기 ▲안준현(이상 기술직)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중두



‘保守’ 맛도 안보겠다???

자동차보험 가입 제한 없어진다

금감원, 무사고 운전자·사고다발지역 거주자 가입 거절 제동

앞으로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의 무사고 경력이나 거주 지역, 차종, 연령 등을 이유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

또 손해보험협회에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자동차보험을 받지 않는 보험사는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지금은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적게 내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와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지역에 사는 운전자, 고가의 외제차나 스포츠카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4일 손해보험협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일 손보사들에 공문을 보내 장기 무사고 운전자 등에 대한 보험 가입 거절 행위를 금지했다.

금감원은 예년대 최근 3년간 3년 이상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등 사고다발자, 보험사기 혐의자 또는 경력자를 제외하고 모든 운전자가 자신이 원하

는 보험사에 자유롭게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손보사들은 현재 자체 인수지침을 통해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 폭이 커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을 받지 않고 있다.

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거주자, 고가의 차량 소유자, 10대 운전자 등은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나중에 보험금 지출이 많아진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 인수를 꺼리고 있다. 특히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최고 60% 할인하는 무사고 운전 기간을 2006년 7년에서 2007년 8년, 올해 9년으로 늘려 사실상 보험료를 인상하고도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추가로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가 관련 법규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보험 인수 실태를 집중 점검해 위반 사실이 드러난 보험사는 임원 문책이나 기관 경고 등 강력한 제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